

洪瑀欽 著, 漢 詩 論

詩에 대한 理論을 詩論이라 한다면 漢詩論은 漢詩에 대한 理論이라 할 수 있다. 漢詩이든 英詩이든 佛詩이든 國文詩이든간에 詩의 生成原理는 마찬가지이다. 表記되는 文字가 漢字·英語·佛語, 한글에 따라 구분되고 각 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思惟方式과 固有形式에 따라 차이가 난다.

여러 유형의 시 가운데서도 漢詩는 東洋의인 思惟에 의해 생성되고 독특한 固有形式을 지니고 있기에 다른 시와 구별된다.

한시는 수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문학의 갈래로서, 그 논의는 일찍부터 행해져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現傳하는 理論書는 역사에 비해 미비한 편이다. 詩經序文, 詩品, 文心雕龍, 各種詩話, 詩法入門, 詩人玉屑, 詩體明辨 등 여러 종류의 詩評, 詩論書가 간행되었지만 初學者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이후 발간된, 漢文教材나 각종 漢詩概說書에는 內容, 形式, 作法 등 주로 表現論만을 중시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였을 뿐 한시의 多樣하고 深遠한 生成原理에 대한 論議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著者が 그간 10여년간 한시강의를 하면서 고민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나름대로의 한시에 대한 확고한 관점을 설정하고, 각종 문헌을 참고하여 저술한 本書는 국내에서는 제일 처음 「漢詩論」이라 題號를 붙인 論著이다. 本書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結論에서는 文學, 詩, 漢詩의 定義를 說文의 字義및 中國 歷代 詩論家들의 見解에 입각해서 밝히고, 한시론의 敘述順序를 다음과 같이 五項目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自我論」에서는 自我의 定義를 내린 후 詩人의 性別과 年齡, 時代思潮 富貴와 貧賤, 社會狀況에 따른 詩人의 人格形成 즉 詩人과 환경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詩人の 心態에 대해서는 心의 兩面性, 心의 機能, 心의 諸樣相을 밝힘으로써, 시에 있어서 心性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詩人の 氣에 관해서는 氣의 定義, 氣의 涵養과 限界, 氣와 心氣와 詩의 관계를 고찰하였으며, 詩人の 才에 관해서는 才의 定義, 才의 生成, 才와 情을 다루었다.

둘째, 「對象論」에서는 對象의 定義, 中心對象과 補助對象을 고찰했으며 形而上의 對象에서는 太極, 道, 理, 佛家の 空 등을 들고 있으며, 形而下的 對象에서는 陰陽, 五行, 氣의 世界, 有의 世界, 色의 世界로 나누고 있다.

셋째, 「物我交感論」에서는 物我的 定義, 交感의 定義와 物我交感의 程序로서 自我의 開眼, 對象의 垂象, 自我의 觀象, 對象의 反照, 自我와 對象의 相看, 自我의 物化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네째, 「心像論」에서는 心像의 定義로서 形而上의 對象에서 얻을 수 있는 心像과 形而下的 對象에서 얻을 수 있는 心像으로 나누어 論述했고, 心像의 特性으로서 瞬間性和 一回성을 들었으며 心像의 無邪에서 無邪의 定義, 無邪의 心像을 形成할 수 있는 要件을 기술했고, 思無邪의 美醜도 아울러 설명했다.

다섯째, 「表現論」에서는 表現의 定義를 내리고 表現의 程序에서 心像의 客觀化, 心像의 描寫, 心手相應을 설명하고, 修辭法에서는 修辭의 定義를 내리고 賦, 比·興의 三種 修辭를 설명했다. 그리고 聲韻의 運用에서는 聲韻의 定義를 내리고 聲韻運用의 理由, 四聲運用의 規則, 押韻規則을 고찰했고, 對仗美의 追求에서는 對仗의 類型, 表現을 위한 修鍊을 고찰한 후 結論을 맺었다.

本書는 各種 論詩資料와 經書, 諸子書, 佛經, 歷史書, 宋代理學書 등의 中國古典에서 詩論과 관계있는 格言, 片言, 絕文, 기타 短篇을 詩論의 諸領域에 따라 尤호적절하게 援用하여 조리와 맥락을 갖추었다. 흩어지고 분해되었던 구슬을 한데 모아 순서를 맞추고 크기를 건주어 하나의 끈에 꿰어 놓은 것과 같다고 하겠다. 이론의 정립에만 그치지 않고 中國과 韓國의 시

작품을 적절하게 挿入시켜 作品과 理論의 密接한 관련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각종 용어에 대한 定義를 說文 등의 字典에 근거하여 내렸으며 東洋思想의 根底가 되는 易學, 心學, 理學의 기초 위에 儒·佛·道의 觀點을 照應시켜 自我, 對象, 物我交感, 心像에 대한 詩的 原理를 導出하려고 시도한 점이 本書의 特徵이라 하겠다.

本書는 韓詩의 形式과 內容, 表現을 위주로 설명한 그간의 논의를 반성케 하고 漢詩文學을 東洋哲學의 바탕 위에서 照明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韓詩의 새로운 地平을 열었다고 생각된다.

(嶺南大 出版部, 1991, 522面)

(嶺南大 學校 民族文化研究所 民族文化研究叢書 15)

金 榮 淑(慶山大學)